
釜山 靑銅器時代 後期文化의 地域相

이 수 홍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부산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특징 |
| II. 유적의 검토 | V. 맺음말 |
| III. 주거지와 무덤의 검토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I. 서론

2,000년대 이후 전국적인 국토개발로 인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청동기시대 유적이 많이 조사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의 하나는 지역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한강하류역, 강원영서지역, 영동지역, 호서지역, 대구지역, 울산을 비롯한 동남해안지역, 남강댐 수몰지구 발굴을 통한 서부경남지역 등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에 의해 소지역 단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전체 청동기시대 편년에 밑바탕이 되었고 사회구조 복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에는 도심이 이미 6~70년대에 개발이 완료되어 발굴성과가 그다지 많았다고 할 수 없다. 알려진 청동기시대 유적 역시 공사 중 수습되었거나 신고품이 대부분이었다. 1997년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기장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다. 최근에는 낙동강 서안인 강서 지구에서도 청동기시대 관련자료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청동기시대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따라서 부산을 주제로한 연구논문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¹⁾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 간행된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이라는 연구총서에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 29곳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²⁾ 하지만 역시 발굴된 자료가 적어 편년을 비롯한 종합적인 연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항도부산 17호(2001년)에는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³⁾, 부산의 청동기시대 취락⁴⁾, 부산·경남과 북구주의 대외교류⁵⁾ 등에 관한 논고가 실렸다. 부산 청동기시대에 대한 최초의 종합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성과가 도출되기 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성과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역시 발굴된 자료가 적다는 점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을 망라하여 주거지와 무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부산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중에서도 후기문화의 지역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 1) 상대적으로 복천동고분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시대에 대한 연구, 동삼동패총과 수가리패총을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연구는 활발하였다.
 - 2) 河仁秀, 1997, 「TV.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89~139쪽.
 - 3) 서영남, 2001,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港都釜山』 第17號.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71~332쪽.
 - 4) 윤태영, 2001, 「청동기시대의 취락-부산을 중심으로-」, 『港都釜山』 第17號.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333~352쪽.
 - 5) 안재호, 2001, 「무문토기시대의 대외교류-부산·경남과 北九州를 통하여」, 『港都釜山』 第17號.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353~400쪽.

II. 유적의 검토

유적을 검토하기에 앞서 부산의 지형적 특징과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안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선학들의 논고와 본고의 시기구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동안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발굴조사된 유적을 지도에 표기하고 최근에 조사가 완료된 석대동유적과 미음동 분절유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지형의 특징

부산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구룡성 산지지대와 서부 평야지대로 구분된다. 현재의 낙동강 하류 농경지는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농경지화 되었던 시기는 1900년대 이후이며 충적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각주 역시 육지화된 것은 삼국시대 이후이다.⁶⁾ 즉 선사시대에는 대부분 바다였으며 현재의 패총이 확인되는 곳이 당시의 해안선일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시대 유적이 입지하는 일대의 지형은 복잡한 하도망이 발달하는 배후저습지와 자연제방역을 끼고 있거나 관망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⁷⁾

동부 구룡성 산지지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산맥과 그 사이의 저지대로 구성된다. 산맥은 금정산(해발 802m)에서 백양산(해발 642m)으로 이어지는 선과 기장 철마산(해발 604m)

6) 오건환·곽종철, 1989, 「金海平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Ⅰ) -地形環境과 遺蹟-」, 『古代研究』, 古代研究會, 47쪽.

7) 오건환·곽종철, 1989, 「金海平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Ⅰ) -地形環境과 遺蹟-」, 『古代研究』, 古代研究會, 39쪽.

에서 해운대구 장산(해발 634m)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구분된다. 금정산에서 연결되는 선은 태백산맥의 끝자락에 해당된다. 철마산과 장산으로 연결되는 선은 해안산맥에 해당되는데 동쪽은 바로 바다에 접한다.

주요 하천은 남해로 흘러드는 낙동강이 대표적이며 양산에서 발원하는 수영강, 수영강에 합류하는 온천천, 장산에서 발원하는 해운대천 등이 있다. 현재의 내륙쪽 하천변까지 청동기시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강변 구릉 끝자락은 선사시대에는 바다에 접하는 구릉에 해당될 것이다.

2. 시기구분안의 변화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그 동안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안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돌대문토기를 지표로 하는 미사리유형 즉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과도기인 조기를 설정하는 안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⁸⁾ 즉 청동기시대를 초기(미사리유형)-전기(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후기(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 등)로 삼분하는 삼시기구분법인데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안은 점토대토기 단계인 종래의 무문토기시대 후기(청동기시대 후기)를 청동기시대에서 분리시켰다. 송국리유형을 청동기시대 중기로 설정한 전기-중기-후기의 삼시기구분은 후기가 삼한시대 전기와 겹치는 문제가 있다. 이 시기는 삼한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인정되지만 토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무문토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초기-전기-후기의 삼시기범인 안재호의 안을 따라 논고

8)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8~27쪽.

를 진행하겠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고의 시기구분과 2001년도에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해 정리한 서영남의 시기구분의 차이를 표로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청동기시대 시기구분과 시기별 주거지와 토기

서영남 (2001)	청 동 기 시 대			삼 한	시 대
		전기	중기	후기(전기)	후기
이수홍 (本稿)	청 동 기 시 대			삼 한 시 대	
	조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주거지	미사리식	둔산식 관산리식	휴암리식 송국리식 울산식		
토기	돌대문토기	가락동식 혼암리식 역삼동식	송국리식 검단리식	점토대토기	와질토기

3. 유적의 검토 및 최신 발굴성과

부산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2001년도 이후 기장군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동기시대 유구는 여전히 많지 않다. 대규모 삼국시대 유적 조사 중 유실된 형태로 수기가 확인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림 1>은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지도에 표기한 것이다. 인접한 울산지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유적 조사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된 곳이다. 울산의 경우 개발이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거의 전지역에서 산 중턱까지 주택이 뻗뻗이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할 만한 곳은 이미 현대의 주택이 들어서

면서 원지형이 유실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개발이 진행 중인 기장군이나 강서지구의 구릉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조사된 유구가 적고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동기시대 유적은 <표 2>와 같다.

<표 2>의 유적 중 최근에 조사가 완료된 석대동유적과 미음동유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아직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지만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이다.

<표 2>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

연번	유적명	유구	시기	년도	조사기관	비고
1	기장 명례리유적	주거지 1	후기	2011	울산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2	장안읍 임랑리유적	생활유적		1998	부산대박물관	지표조사
3	방곡리유적	주거지16	전기~후기	2003	울산대박물관	발굴조사★
4	가동유적	주거지 7	후기	2005	울산대박물관	발굴조사★
5	청강리유적	주거지 3	후기?	2002	북천박물관	발굴조사★
6	청강리유적	?	전기?	1997	부산박물관	유물수습
7	시랑리 공수A유적	생활유적		1998	부산대박물관	지표조사
8	고촌유적(I 지구)	무덤1, 구상유구 1	후기	2007	경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9	고촌유적(III지구)	주거지 1, 수혈 1	전기?	2007	경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10	기장 안평리 543-36번지 유적	주혈군, 고상건물지		2009	한국문화연구원	발굴조사★
11	회동동유적	주거지 4		2011	울산문화재연구원	보고서미간
12	석대동유적	주거지 16, 무덤 4	전기~후기	2011	울산문화재연구원	보고서미간
13	반여동유적	주거지2		1986	동의대박물관	발굴조사★
14	노포동유적	주거지2	후기	1985	부산대박물관	발굴조사★
15	노포동유적	주거지10	후기	2005	경남발전연구원	발굴조사★
16	노포동 대릉유적	석관묘		1998	부산대박물관	지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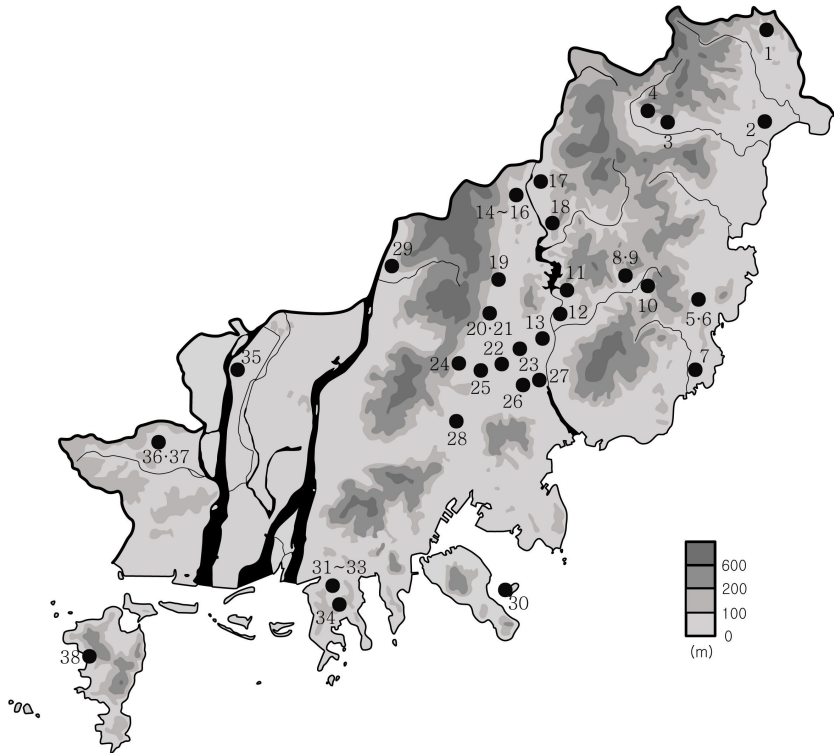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유구	시기	년도	조사기관	비고
17	두구동 임석유적	석관묘	삼한	1987	부산박물관	발굴조사★
18	오륜동유적	?		1975	부산대박물관	지표조사
19	장전동유적	석관묘	삼한	1935		채집
20	온천동유적	생활유적·무덤유적				채집
21	온천동유적	주거지4	?	2011	부산박물관	보고서미간
22	수안동 231-2번지 유적	수혈 1	후기?	2003	북천박물관	발굴조사★
23	내성유적	주거지2	삼한	1989	부산박물관	발굴조사★
24	사직동유적	석관묘		1964		주민신고
25	거제동유적	생활유적	삼한	1997	부산박물관	유물수습
26	연산동유적	?		2000	북천박물관	유물수습
27	망미동 동래읍성지	석관묘	후기	2005	경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28	연지동 시민공원부지	주거지, 무덤	후기	2011	동양문물연구원	보고서미간
29	율리암읍유적	암읍포함층		1973	부산대박물관	발굴조사★
30	조도유적	폐총	후기	1973	중앙박물관	발굴조사
31	괴정1동유적	주거지?				공사중 수습
32	괴정2동유적	석관묘				공사중 발견
33	괴정동폐총	폐총	후기	1962		채집
34	감천동지석묘	지석묘		1964		공사중 발견
35	북정폐총	폐총		1970	부산대박물관	지표조사
36	미음동 분절지석묘	지석묘			부산박물관	지표조사
37	미음동 분절유적	주거지 1, 지석묘	후기	2010	부산박물관	보고서미간
38	가덕도 두문지석묘	지석묘		1992	부산여대박물관	지표조사

자료 : 서영남, 2001,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 참조.

주 : 연대는 3시기 구분법에 따라 필자가 수정(★는 발굴조사된 유적 중 보고서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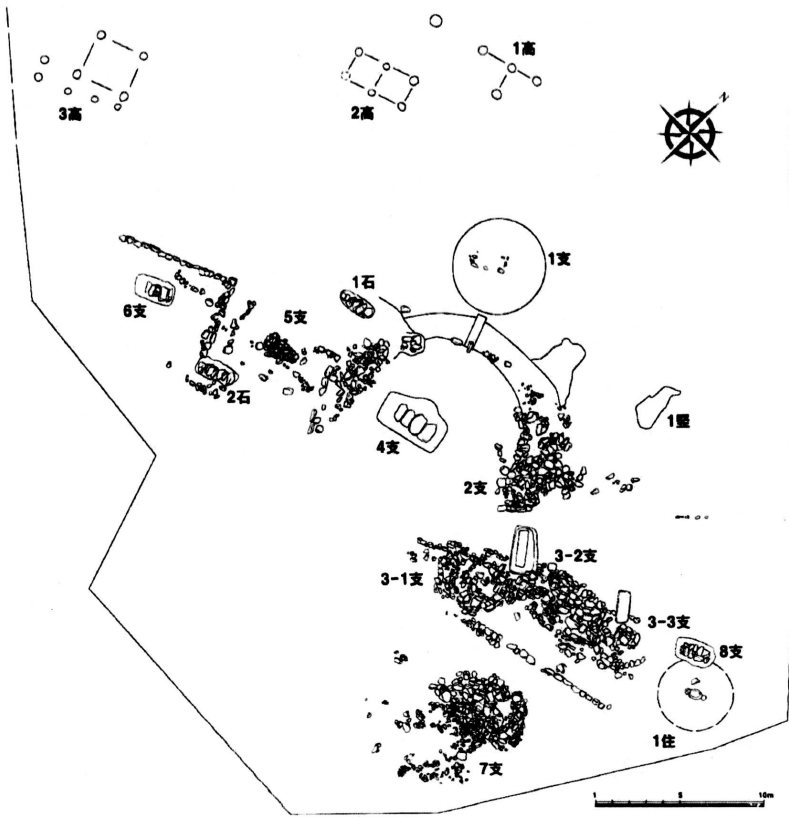
■ 석대동유적⁹⁾(그림 1의 12, 그림 2)

해운대구 석대동 산 167-2번지 일원에 분포한다. 동쪽의 야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유적의 앞쪽(서쪽)에는 수영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6동, 무덤 4기, 구상유구 1기, 굴립주 건물지 1기, 조선시대 묘 35기가 조사되었다.



<그림 1>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분포도(번호는 표 2의 유적번호와 동일함)

9) (재)울산문화재단연구원, 2011, 「부산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1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중간 약보고서」.



<그림 2> 미음동 분절유적 유구배치도

부산지역에서 조사예가 적은 전기의 주거지도 3동이 확인되었다. 세장방형주거지는 2동(9호, 13호)이며 16호 주거지는 평면형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른 시기의 갈판이 출토되었다. 후기의 주거지 13동 중 10동은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이며 3호, 11호, 14호 주거지는 방형계의 울산식주거지이다. 즉 후기에 지역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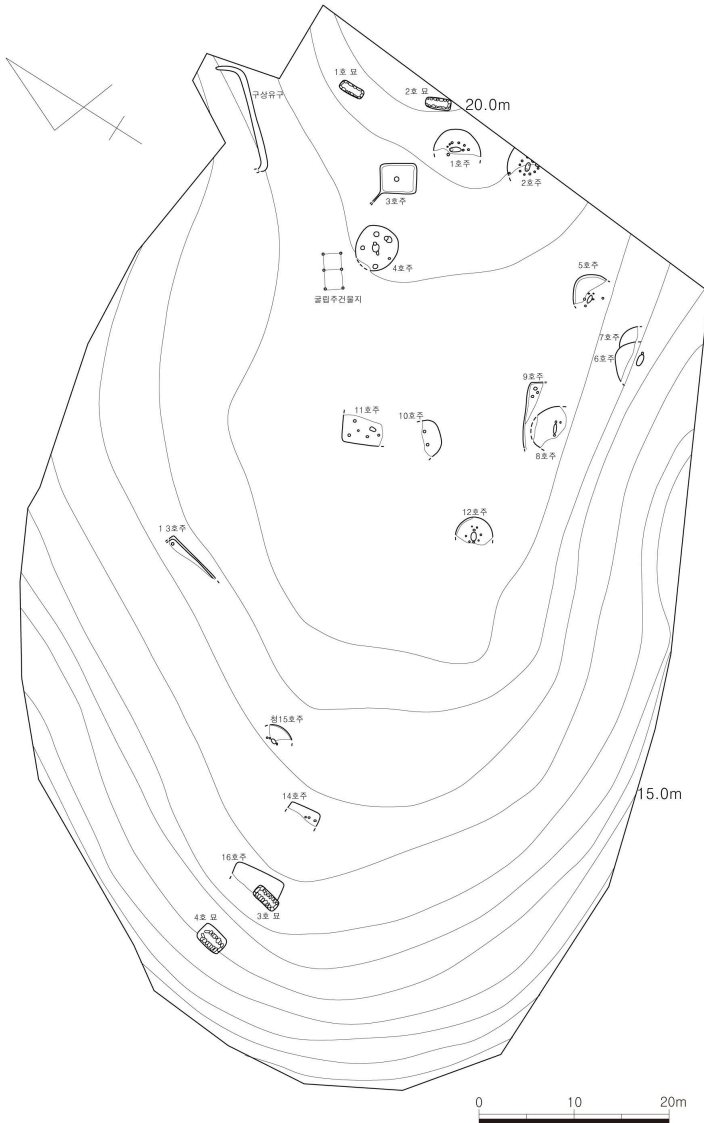
뚜렷한 송국리문화의 주거지와 검단리유형의 주거지가 한 유적에서 모두 확인된 것이다.

무덤이 4기가 조사되었는데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모두 할석형 석관묘이다. 대체로 단벽은 벽석 1매를 수직하였고 장벽은 인두대의 할석을 쌓아서 축조하였다. 바닥은 시상석이 깔려 있는데 한 쪽 단벽쪽에는 시상석이 깔리지 않았다. 그곳 위에만 개석이 확인된다. 부장공간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일단적식석촉, 호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 미음지구 분절유적¹⁰⁾(그림 1의 37, 그림 3)

강서구 미음동 1120-1번지 일원에 분포한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군집된 포석형지석묘(용담식지석묘)가 조사된 유적이다. 지석묘 10기, 석관묘 2기와 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3동이 조사되었다. 묘역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타)원형이다.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토광, 할석형석관, 위석목관 등 다양하다. 개석은 다중으로 덮혀 있는 것이 많다. 바닥은 아무 시설이 없는 것과 시상석이 깔린 것, 2~3매의 할석을 바닥에 깔아 마치 관대와 같은 효과를 낸 것 등이 있다. 유물은 전형적색마연토기, 호형적색마연토기, 석검,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1동 조사되었다. 주거지와 무덤이 동시기에 공존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동시대인 것은 확실하다. 무덤군 위쪽에는 굴립주 건물지 3동이 분포한다.

10) 미음지구 분절유적의 자료조사는 동진숙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보고서가 간행될 때는 유적명이나 유구호수 등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표 4에 기술된 개개유구에 대한 상세가 사실과 차이가 있을 경우 전적으로 필자의 부주의가 원인임을 밝혀 둔다. 온천동유적과 함께 자료를 제공해주신 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의 홍보식선생님, 동진숙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림 3> 석대동유적 청동기시대 유구배치도

Ⅲ. 주거지와 무덤의 검토

주거지와 무덤의 편년을 살펴보기 전에 한반도 남부지방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약한 부산지역의 자료로 편년을 시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한 사례가 적어 공백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조기는 돌대문토기를 지표로하는 미사리유형으로 대표된다. 토기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지표가 되고 주거지는 위석식노지를 갖춘 방형, 대형장방형주거지가 축조된다. 전기는 소위 말하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¹¹⁾으로 대별된다. 2000년대 초부터는 가락동식과 역삼동·혼암리식을 지역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새로 제기되었다. 가락동식과 역삼동식이 한강유역에서 혼합하여 혼암리식이 발생하였다는 견해는 2000년대 초에 지역성으로 정리된 듯 하다. 가락동유형이 금강하류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역삼동·혼암리유형이 한반도 남부지역 전체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 지역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가락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는 어느 정도 시간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고고학의 선후관계가 반드시 앞선 유물(의 특징)의 종말 후 새로운 유물(의 특징)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

11) 종래에는 혼암리유형과 역삼동유형으로 분리하였으나(이백규 1974)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은 토기의 문양 외에는 유사성이 강해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통칭하고 있다.(이형원 2002)

李白圭, 1974, 「京畿道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 『考古學』 3, 韓國考古學會.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자는 청동기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세 토기의 선후관계는 계기적 선후관계¹²⁾로 파악하고 있다.

<표 3> 청동기시대 전기토기의 시간성과 지역성(이수홍 2010)

지역축 시간축	→ 後		
	先 시간성	지역성	시간성
가락동식토기			
흔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			

자료 : 이수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토기의 시간성과 지역성」

1970년대 충청남도 부여에서 송국리유적이 조사된 이후 점차 자료가 집적되면서 송국리유형을 청동기시대 중기(본고의 청동기시대 후기)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¹³⁾ 이 때가 되면 한반도 남부지방의 청동기시대 사회는 돌변한다. 금강하류역을 중심으로 송국리문화가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확산된다.

하지만 최근 자료가 급증하면서 송국리문화가 한반도 남부지방 전체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에서 경북북부, 동남해안을 弧狀으로 잇은 선의 남서쪽에만 분포하는 것이 밝혀졌다. 필자는 전고에서 송국리문화가 분포하지 않는 지역을 ‘검단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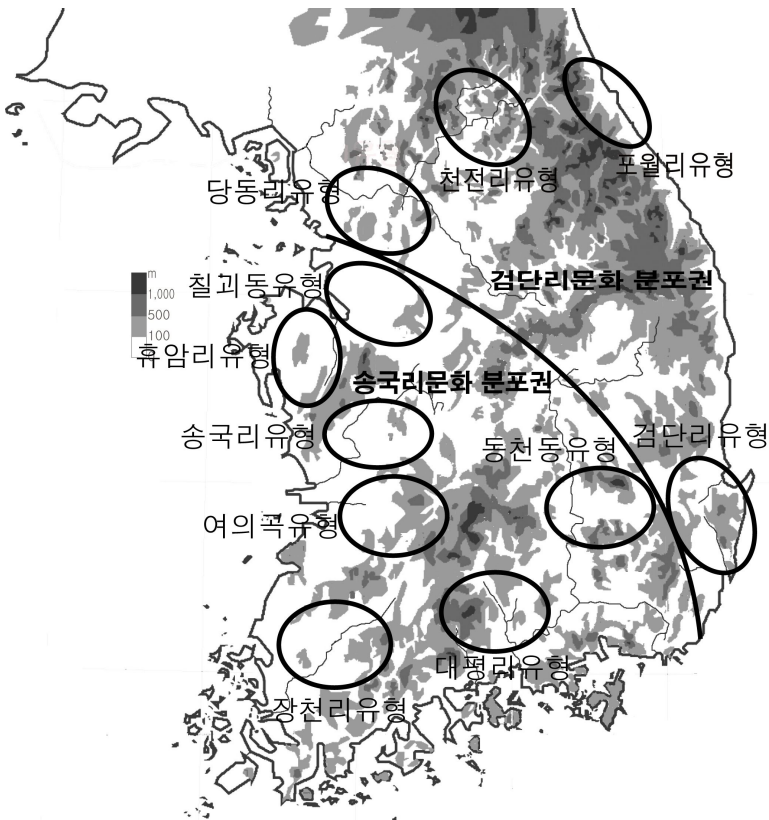
12) 安在晧,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13)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3』 弥生土器Ⅰ. 雄山閣.

河仁秀, 1989, 「嶺南地方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安在晧,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화분포권'으로 명명하였다.¹⁴⁾ 검단리문화분포권 중에서도 포항-경주-울산-양산-부산을 포함하는 지역은 청동기시대 후기 검단리 유형이 분포하는 곳이다. 송국리문화가 분포하지 않는 곳은 전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청동기시대 후기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림 4>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역성(이수홍 2010에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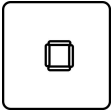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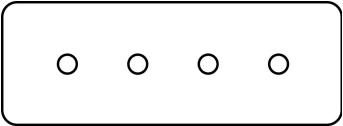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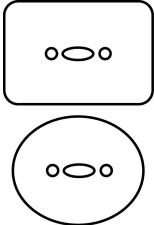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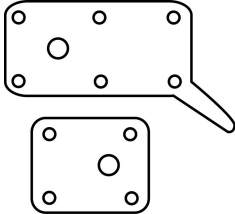
14) 이수홍, 2010, 「송국리문화의 안과 밖」, 『부여 송국리유적으로 본 한국 청동기 시대 사회』, 제3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집, 108쪽.

부산은 한반도의 동남단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곳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의 경계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일성을 가지는 청동기시대 전기는 한반도 전역과 동일한 변화를 하지만 후기에는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지와 무덤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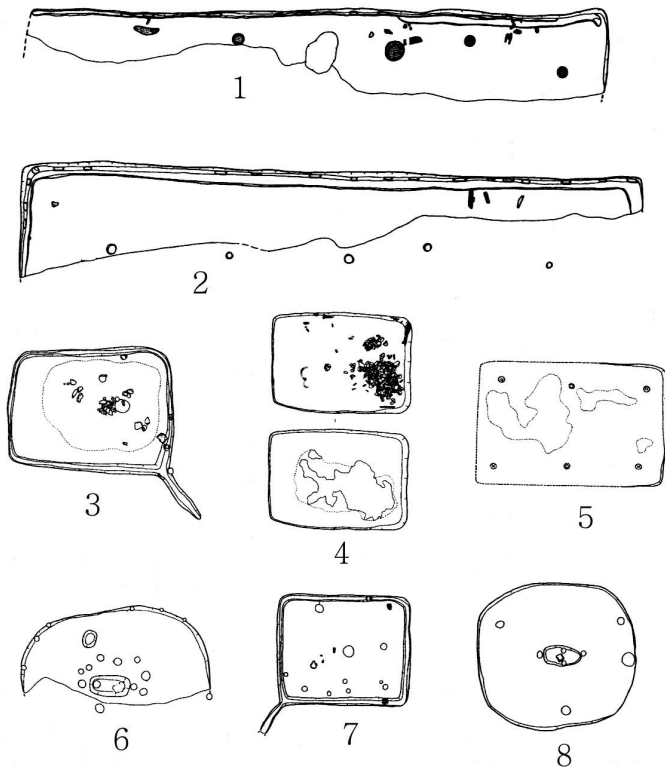
1) 주거지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60동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등의 방형계와 (타)원형계로 나뉜다. 일반적인 청동기시대 주거지변화의 개요는 <그림 5>와 같다.

早期		
前期		
後期		
	송국리문화	검단리유형

<그림 5> 청동기시대 주거지 변화도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는 회동동유적, 석대동유적, 기장 방곡리유적에서 조사되었다. 방곡리유적은 가-2호, 6호(그림 6의 1), 9호, 10호(그림 6의 2), 11호, 나-3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출토된 유물은 빈약하지만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은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구순각목토기, 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이단병식석검 병부편 등이다. 전형적인 전기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부산지역 주거지(S=1/200, 1:방곡리 6호, 2:同 10호, 3:가동 2호, 4:同 3호, 5:同 4호, 6:석대동 1호, 7:同3호, 8:同 4호)

회동동유적에서는 1호 주거지가 전기에 속한다. 주거지의 대부분이 유실되었지만 내부에서 전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대부소옹이 출토되었다.

석대동유적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9호, 13호, 16호 주거지가 전기에 속한다.

반여동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길이가 1,100cm, 폭이 385cm 정도의 대형세장방형주거지이다. 합인석부, 석착,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문양은 돌류문, 단사선문이다. 검단리식토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여동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규모가 큰 대형주거지이지만 전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의 유력개인의 주거지일 가능성이 있다.

후기의 주거지는 방형계와 (타)원형계로 분류된다. 방형계는 기장을 중심으로 부산의 북동쪽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벽주구, 주혈, 노지, 배수구가 설치된 전형적인 ‘울산식주거지’¹⁵⁾이다.

2010년도부터는 부산지역에서도 송국리형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미음동유적에서는 1동이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추정되며 작업공 양쪽의 주혈이 작업공에 연결해 있다. 부산진구 연지동의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구 하야리야 부대) 유적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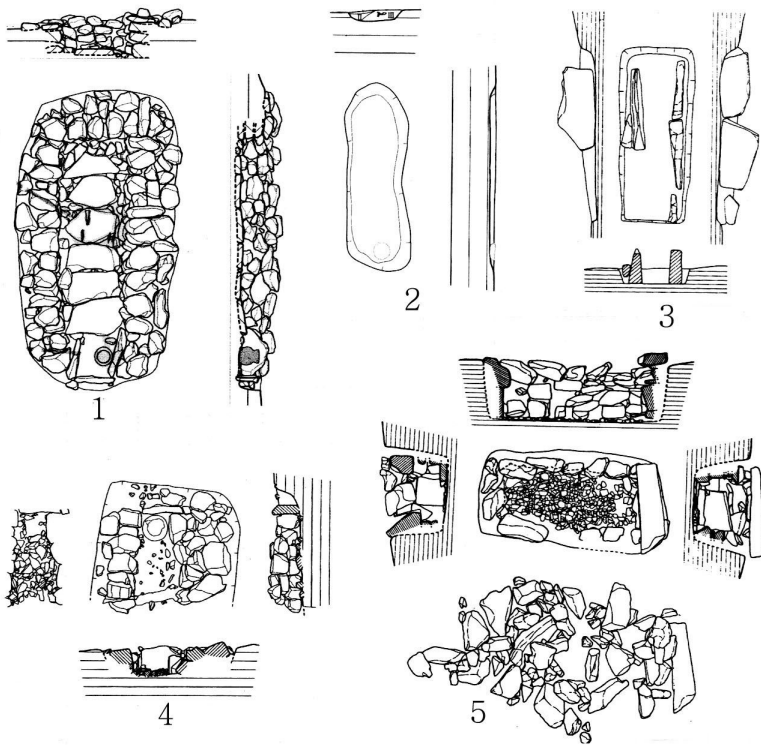
석대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동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 10동이 송국리형주거지이다(그림 6의 6·7). 중앙의 타원형수혈 외곽으로 다시 원형의 소혈이 설치되었는데 사천 이금동유적의 주거지와 유사하다.

15) 金賢植, 2006, 「蔚山式住居址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6) 東洋文物研究院, 2011,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A·B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동양문화연구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2011-004.

2) 무덤

부산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무덤은 25기이다. 지석묘와 석관묘의 구분은 애매하고 경우에 따라 구분에 의미가 없기도 하다. 지석묘의 하부구조가 석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상석이 있거나 돌을 이용한 묘역이 있는 무덤을 지석묘라 하였다. 부산지역에서 지석묘는 지표조사를 통해서만 제법 알려져 있지만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곳은 미음동 분절유적이 유일하다.



<그림 7> 부산지역 무덤(S=1/100, 1:연지동 시민공원부지 B-1호, 2:고촌유적, 3:노포동 대릉유적, 4:망미동 동래고읍성지, 5:두구동 임실유적)

<표 4>.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유적명 옆의 번호는 그림1의 유적번호와 동일함)

유적	호수	매장주체부		규모(cm)			시상	개석	묘역	출토유물	시기
		위치	구조	장	단	심					
고촌유적 토광묘(8)		지하	토광	210	72	7		×		석검	후기
석대동유적 (12)	1	지하	할석석관	300	130	66	○	?		석촉, 공열토기	후기
	2	지하	할석석관	300	148	64				석촉	후기
	3	지하	할석석관	292	153	75	○			석검, 호형토기	후기
	4	지하	할석석관	336	192	74	○	?		석촉, 무문토기	후기
노포동대릉 석관묘(16)		지하	판석석관	97	42						
두구동임석 토광묘(17)		지하	토광?	300	105	70	○				삼한
망미동 동래고읍성지 석관묘(27)		지하	할석석관		50		○			호형토기	후기
연지동 시민공원 부지내 유적 (28)	A-1	지하									후기
	A-2	지하	석개토광	116	61	27		○			후기
	B-1	지하	할석석관	339	180	41					후기
	B-2	지하		224	88	48	○				후기
	B-3	지하	목관?	231	110	63		○			후기
미음지구 분절유적 (37)	1호支	지하	토광	264	130	63	○(판대)	○	원형	적색마연	후기
	2호支	지하	할석석관	418	278	141	○(판대)	○		석검, 석촉, 적색마연	후기
	3-1호支	지하	할석석관	253	112	59	○	○	원형		후기
	3-2호支	지하	토광	329	92	60		○	장방형	적색마연	후기
	3-3호支	지하	할석석관	166	84	22	○(판대)	○	원형	적색마연	후기
	4호支	지하	할석석관	412	220	160	○(판대)	○	원형	적색마연	후기
	5호支	지하	할석석관	224	103	38		○			후기
	6호支	지하	석개토광	247	146	77		○	장방형	적색마연, 석촉	후기
	7호支	지하	할석석관	384	176	153		○	원형		후기
	8호支	지하	위석목관	242	138	181	○(판대)	○			후기
	1호石	지하	할석석관	230	100	55		○	×	적색마연, 석촉	후기
	2호石	지하	석개토광	260	115	65		○	×	석촉	후기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토광, 할석석관¹⁷⁾이 대부분이다. 미음동 분절유적 8호 지식묘는 내부에 목관이 존재한 위석목관묘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토광묘는 내부에 목관이 존재했었거나 거적대기와 같이 시신을 둘러싼 유기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인접한 울산지역의 무덤을 정리하면서 매장주체부 별로 편년을 시도하였다.¹⁸⁾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순수토광묘는 포항, 경주, 울산의 경우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한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경우 고촌유적 토광묘가 순수토광묘(그림 7의 2)인데 내부에서 일단경식석검이 출토되어 후기에 속한다. 순수토광묘가 전기에서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내부에 할석이 존재하지만 벽석이라고 하기에는 영성하게 쌓여 있어 목관이나 다른 시설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무덤은 삼한시대에 축조된다고 하였다. 삼한시대에 속하는 두구동 임실유적의 무덤은 석곽묘(본고의 할석석관 그림 7의 5)로 보고되었지만 보고서에서도 기술되어 있듯이 목관을 안치한 후 돌과 흙을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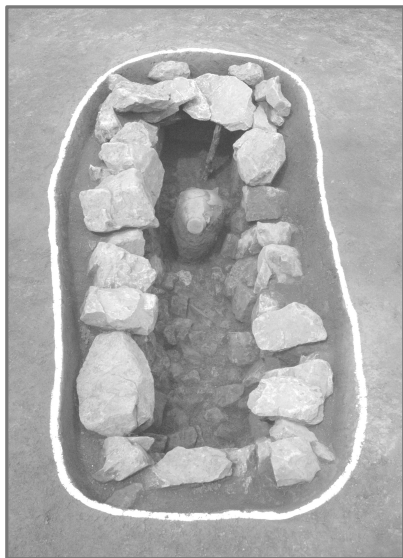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25기의 무덤은 모두 후기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로는 정치한 편년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편년 보다는 구조와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석대동유적 할석석관묘의 특징은 한쪽 단벽쪽에 부장공간을 마

17) 매장주체부의 명칭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대체로 석재의 종류에 따라 판석이 사용되면 석관, 할석이 사용되면 석곽, 지상식지석묘는 유사석곽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棺’과 ‘槨’의 개념을 용어에 반영한다면 돌로 축조된 청동기시대 무덤은 석관묘가 타당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판석이 사용되면 板石石棺墓, 할석이 사용되면 割石石棺墓, 지상식지석묘의 하부구조는 圍石形石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8) 李秀鴻, 2011, 「檢丹里類型的 무덤에 대한 연구」, 『考古廣場』 8. 釜山考古學研究會.



<사진 1> 석대동 1호

위에 놓였던 유물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련하였다는 점이다. 부장공간에는 시상석이 깔리지 않고 그 주변만 판석을 세우거나 그 상부에만 개석이 잔존한다. 나머지 개석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木蓋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석대동유적 1호(사진 1)의 경우 완형의 토기가 바닥에서 20cm 정도 뜬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개석상부에 놓였다가 개석이 유실되었다면 토기가 온전히 보존될 수 없었을 것이다. 목개 사이로 흘러 내부에 쌓인 흙 위로 목개가 부식되면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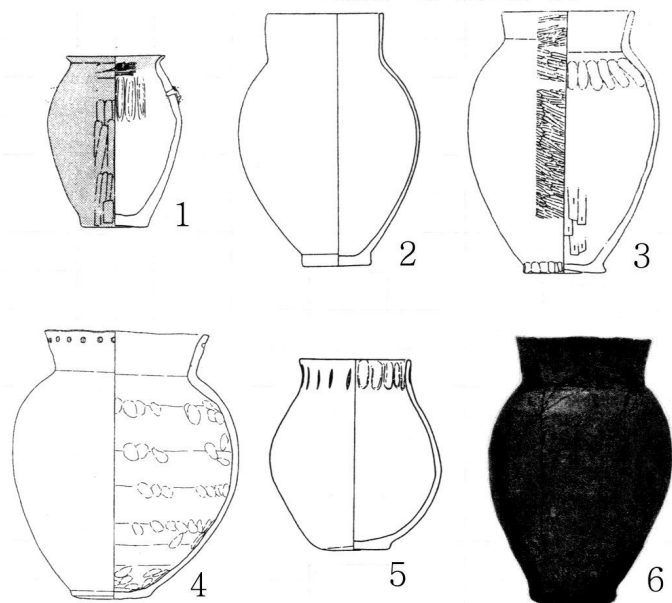
■ 부산의 무덤부장 특징

1964년에 괴정동패총 하층에서 출토된 호형적색마연토기는 이후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에서 계속 출토되고 있다.¹⁹⁾ 현재까지 괴정1동, 괴정2동, 사직동 무덤, 망미동 동래고읍성지 석관묘, 연지동 시민공원부지내 유적 B-1호, 석대동유적 1호 묘, 미음동 분절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적색마연토기인데 망미동 동래고읍성지 석관묘 출토품(그림 8의 4)과 석대동 1호 석관묘 출토품은 무문토기이다. 경부는 외반하는 것과 직립하는 것 두가

19) 괴정동패총 출토 적색마연토기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尹邵映, 1992, 「釜山槐亭洞貝塚出土 丹塗磨研土器」, 『古文化』 41·42合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43~45쪽.

지 형태가 있다. 파수가 부착된 것도 있다. 일반적인 송국리문화 분포권 무덤에 전형적색마연토기가 부장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의 서쪽에 해당되는 미음동 분절유적에서는 전형적색마연토기와 같이 출토되지만 전형적색마연토기의 출토비율이 부산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대신 호형적색마연토기가 부산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기 때문에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표지적인 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 무덤부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림 8> 호형(적색마연)토기(S=1/10, 1:괴정동패총, 2:괴정1동, 3:괴정2동, 4:망미동 동래고읍성지, 5:사직동, 6:연지동 시민공원부지내 유적 B-1호)

20) 본 토기에 대해서는 석대동유적 현장에서 안재호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다.

IV. 부산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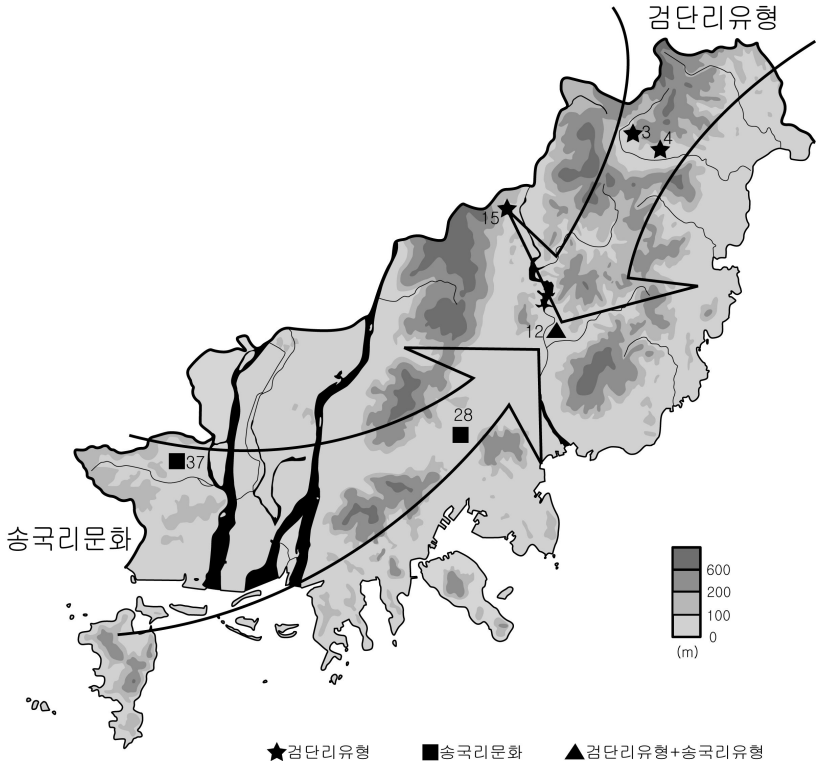
부산의 청동기시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기와 전기는 한반도 남부지역과 제일성을 가지며 후기가 되면 독특한 지역성을 띤다. 후기문화의 특징을 검토하기 전에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의 부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의 부산

초기의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타지역의 경우 초기의 유적은 모두 강변의 충적지에서 조사되었다. 강변 충적지의 잡곡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문화로서 큰 강이 없는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²¹⁾ 청동기시대 부산지역은 넓은 충적지가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김해평야는 당시 바다 내지는 습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수영강이나 온천천은 넓은 충적지가 발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경주 충효동, 금장리에서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어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초기의 주거지가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²²⁾

21) 金材胤, 2003, 「韓半島 刻木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78쪽.

22) 최근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금정구 회동유적에서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고 한다.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다고 모두 초기에 해당되는 않지만 앞으로 이른 주거지가 출토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9>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의 전파

전기는 한반도 남부지방이 제일성을 가진다. 금강하류역의 가락동유형과 그 외 지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은 어느 정도 지역성을 띠는데 부산은 역삼동·혼암리유형의 분포권에 속한다. 타지역과의 차별성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자료가 증가한다면 동일한 문화유형 내에 소지역권이 형성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2. 청동기시대 후기의 부산

후기에는 부산지역의 특징이 뚜렷이 부각된다. 부산지역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이 모두 확인된다. 즉 양 문화의 경계지역에 해당된다.²³⁾ 검단리유형의 유적은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동쪽에 밀집되어 있다. 북쪽의 울산지역에서 현재의 7번 국도, 31번 국도를 거쳐 남쪽으로 남하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쪽 경계는 현재의 자료로는 연지동 부산시민공원부지내 유적이나 석대동유적이다. 송국리문화의 유적은 낙동강 서안의 미음동유적부터 석대동유적까지 확인된다. 남해안쪽을 경유하는 코스와 김해에서 양산을 거쳐 내려오는 코스를 상정할 수 있는데 주로 남해안 쪽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음동분절유적의 지석묘는 개석이 겹겹이 놓인 다중개석이다. 이러한 다중개석무덤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다.²⁴⁾ 주로 남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데 여수 반도에서부터 사천 이듬동유적 - 마산 진동리유적 - 창원 덕천리유적 - 김해 울하유적 - 미음동 분절유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청동기시대 후기의 부산지역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그러한 양상이 잘 나타난 곳이 석대동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23) 필자는 舊稿에서 검단리식토기와 송국리식토기가 양산과 김해, 부산지역에서 병존한다고 하였다.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2쪽. 송국리형주거지가 울산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지만 대세로 볼 때는 양산과 부산이 동쪽 한계선으로 생각된다. 검단리유형의 서쪽 경계는 김해지역일 것이다.

24) 윤호필, 2005, 「青銅器時代 多重蓋石 무덤에 관한 연구-意味와 分布圈을 중심으로-」, 『咸安 鳳城里遺蹟』,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134쪽.

V.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신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조기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의 자료는 방곡리유적, 회동동유적, 석대동유적 등에서 조사되었는데 주로 세장방형주거지이다. 후기에는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와 방형계의 검단리유형의 주거지(울산식주거지)가 공존한다. 무덤은 모두 후기에 속한다. 매장주체부는 할석석관이 대부분이며 토광, 위석목관 등이 있다. 부산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호형적색마연토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유례가 적은 부산지역만의 부장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성이 강하다.

부산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이 공존하는 곳이다. 검단리유형은 주로 기장을 중심으로 북쪽에 많이 분포하고 송국리문화는 서쪽에 많이 분포한다.

신자료를 이용해 부산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필자 역시 자료의 소략함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자료가 증가한다면 보다 정치한 편년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이나 강서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지도 재개발된다면 지하의 매장문화재조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지동 시민공원조성부지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원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료가 확보되어야만 부산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호형적색마연토기에 대해서는 석대동유적 현장에서 안재호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다. 유물 관찰과 관련하여 항상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본고의

도면을 작성하는데 본 연구원의 김현식, 박준현, 신영이 세 분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참고문헌】

- 金材胤, 2003, 「韓半島 刻木突帶文土器의 編年과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賢植, 2006, 「蔚山式住居址 研究」釜山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서영남, 2001,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港都釜山』第17號
- 安在皓,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 安在皓,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동북아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학연문화사.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釜山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오건환·곽종철, 1989, 「金海平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Ⅰ)-地形環境과 遺蹟-」『古代研究』. 古代研究會.
- 尹韶映, 1992, 「釜山槐亭洞貝塚出土 丹塗磨研土器」『古文化』 41·42合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윤태영, 2001, 「청동기시대의 취락-부산을 중심으로-」『港都釜山』第17號.
- 윤호필, 2005, 「青銅器時代 多重蓋石 무덤에 관한 연구-意味와分布圈을 중심으로-」『咸安 鳳城里遺蹟』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李白圭, 1974, 「京畿道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考古學』 3, 韓國考古學會.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釜山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秀鴻, 2010, 「송국리문화의 안과 밖」『부여 송국리유적으로 본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 제3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李秀鴻, 2011, 「檢丹里類型的 무덤에 대한 연구」『考古廣場』8. 釜山考古學研究會.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研究」忠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河仁秀, 1989, 「嶺南地方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釜山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河仁秀, 1997, 「IV. 青銅器時代 遺蹟과 遺物」『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弥生文化の研究3』弥生土器Ⅰ. 雄山閣.
- 東洋文物研究院. 2011,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A·B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동양문물연구원 학술자문회의자료 2011-004.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부산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1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중간 약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20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미음(A-1, D-2, I지구)지구 유적 발굴조사결과서』.

투 고	심 사	완 료
2011.10.27	2011.11.30	2011.12.12

【국문 초록】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한반도 남부지방이 제일성을 가진다. 금강 하류역에는 가락동유형이 분포하고 그 외 지역은 역삼동·혼암리유형이 분포한다. 부산은 역삼동·혼암리유형 분포권이라 할 수 있다. 부산에서 전기의 주거지는 방곡리유적, 석대동유적 등에서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송국리문화가 새롭게 등장한다. 송국리문화는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경기 남부 - 충청북부 - 경북북부 - 동남해안을 잇는 선의 남서쪽에 분포한다. 송국리문화가 분포하지 않는 곳을 검단리문화분포권이라 한다면 울산을 비롯한 동남해안지역은 문화권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유형이라 할 때 검단리유형이 분포하는 곳이다. 부산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이 모두 확인되는 곳으로 양 문화의 접경지라 할 수 있다.

부산에서 조사된 무덤은 모두 후기에 속한다.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할석석관, 토광, 위석목관 등이 있는데 할석석관묘가 다수를 차지한다. 호형(적색마연)토기가 부산지역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지역성을 인정할 수 있어 '부산식토기'라 명명하였다.

검단리유형은 기장을 중심으로 북동부에 주로 분포한다. 송국리문화는 서쪽의 미음동 분절유적, 부산진구의 하야리아부대 부지내 유적, 석대동유적 등에 분포하다. 검단리유형은 북쪽에서 전파되었고 송국리문화는 남해안을 비롯한 서쪽에서 전파되었다. 석대동유적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이 모두 확인된 유적이다.

핵심주제어 : 부산,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 검단리유형, 분포권

【Abstract】

**The regional status of latter part
of the Bronze age in Busan**

Lee Soo Hong / The Ulsan Institute of Properties

This paper reviewed the culture of the Bronze age in Busan area based on newly excavated materials.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ad Uniformity of the former part of the Bronze age. Culture of Kum-River downstream was usually Garak-Dong type, while Yeoksam-Dong type and Heunam-Ri type were in other areas. Busan was the area of distribution of Yeoksam-Dong, Heunam-Ri type. The representative dwellings of excavated former part of the Bronze age in Busan were found in Banggok-Ri and Seokdai-Dong remains.

When the latter part of the Bronze age in Busan, Songkuk-Ri culture appeared. Songkuk-Ri culture failed to spread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Songkuk-Ri culture just distributed in the southwestern areas of the southern Kyungki, the northern Chungcheong, the northern Kyungbuk and the southeastern coast as a connecting line. The area of Kumdan-Ri cultural distribution was defined as the area of a non-existent area of Songkuk-Ri culture in this paper. Especially Busan had both cultures as a borderland.

Excavated tombs in Busan belonged to the latter period of the Bronze age. The types of main part of burial were a split stone

coffin, the hole tomb of soil, and the wooden coffin surrounded with stones. The tombs of split stone coffin were the majority. The feature of the tombs in Busan area was excavated lots of red pottery.

The Kumdan-Ri type was mainly distributed around Kijang in northeastern part of Busan. Songkuk-Ri type was mostly distributed in western Busan. I believe that The Kumdan-Ri type was spread from North, while Songkuk-Ri culture was spread from southern coast. Sukdai-Dong site excavated both cultures in Busan area

Key words : Busan, Bronze age, Songkuk-ri Culture,
KumdanR-type, distribution